

8/2/20

설교 제목: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내어쫓김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1 장 1-21 절

(창 2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 21: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 21: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창 21: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창 21: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창 21: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 21: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창 21: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창 21: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창 21: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창 21: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창 21: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창 21: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 21: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창 21: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절관주** 민 20:5

- (창 21: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 (창 21: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 (창 21: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 (창 21: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 (창 21: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 (창 21: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지 25 년 되던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100 세가 되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25 년의 삶은 다사다난 했습니다.

기근을 피하고자 내려간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연유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아들같이 여기고 길렀던 조카 롯을 분가시켜야만 했으며 또 롯이 북부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자 집에서 길리운 318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북부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가 쳐부수고 구해 오기도 했습니다.

아내 사라의 종 하갈로부터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20 여년을 살았던 헤브론 마므레에서 네게브 그랄로 이주를 하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애굽에서와 같이 또 다시 아내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혹독한 시련들을 겪으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겪어야 했던 시련들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이 되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 2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 21: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5 년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저자 모세는 '말씀하신'이라는 단어를 세 번씩이나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 세 사라의 나이 90 세였습니다.

경도가 끊어져 사라의 몸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신 것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태어난 것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 사실은 사라를 강권으로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구해 주셨던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은 장차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낳은지 8 일이 되어 증생과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창 21: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창 21: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은 '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년 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때 사라는 자신의 나이가 많은
연고로 불신하고 냉소적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출산한 지금 사라는 믿음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 때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대로 이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창 21: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때가 이삭이 3 살, 이스마엘이 17 살쯤 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창 21: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창 21: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창 21: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였기에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이삭이 태어난 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집중되었던 관심과 사랑이 이삭에게로 돌려졌고 아스마엘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이삭을 미워하고 구박했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17 살 정도이고 이삭의 나이는 3 살 정도였으니 이삭은 이스마엘의 구박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하자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비록 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며 얼마나 애지중지 기른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사라가 질투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언약의 자손과 비언약의 자손을 구별하여 분리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 21: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창 21: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삭만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 즉 언약의 자손과 비언약의 자손을 분리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사라의 질투나 이스마엘과 이삭 두 이복 형제 간의 다툼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언약자와 비언약자 간의 갈등과 충돌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비언약의 자녀가 내어쫓김을 당하여 언약의 자녀와 비언약의 자녀가 분리됩니다.

비언약의 자녀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더라도 결국 그들은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 4: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 4: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 4:30)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 4: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 대해 성경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그럴지라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난 자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비록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약속대로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주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냅니다.

(창 21: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창 21: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창 21: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브엘세바까지 갔으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고 갈증이 심해지는 절망적 상태에 이르게 되자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그를 관목 덩불 아래 있게 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보아야만 하는 어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갈은 차마 아들 이스마엘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저만치 떨어져서 아들을 바라보고 통곡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술수로 이루려고 한 결과가 이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창 21: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창 21: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 21: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잘 기르라고 하며 이스마엘로 하여금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 절망 가운데 있던 하갈은 이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정을 찾고 힘을 회복하게 되어 주변에 있던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물을 떠다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창 21: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창 21: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는 들나귀 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에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동으로는 아라비아, 서쪽으로는 애굽의 술 광야, 북으로는 팔레스틴 남부와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내로 애굽 여인을 얻어 주었습니다.

이 결혼으로 이스마엘이 더욱 약속의 후손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거친 광야에서 유랑하는 전사로서 전쟁과 파괴를 일삼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삭의 후손들은 인류 구속의 사역을 위한 선민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난 자들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당장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결국 내어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그들은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